

Consider the Bird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November 9, 2023

Aloha MPC 'Ohana,

One of the (many) things which I love about Hawai'i nei is all the beautiful, singing birds. I ran across a poem about birds recently. Although it was written by someone on the Mainland (and hence refers to North American birds), there was something about it nonetheless that spoke to my soul. Maybe it'll speak to yours too.

Me ke aloha,
Pastor Ron

Consider the Birds

It caught my eye at once,
I turned the corner and
stopped, looked, and smiled.
The painting of St. Francis preaching to the birds.
in his black robe, his hand extended,
the beloved saint faced rows of birds.
Birds in an array of colors
looking at him as he spoke,
“Sweet little sisters of the sky.”

I wonder if we have it backwards.
And the birds are preaching to us?
And we are just too busy to listen.
“Consider the birds”, Jesus said.
Consider the Canada Geese working together,
forming a perfect V as they fly across the horizon.
Consider how the corncrakes
on Iona, hidden in the grass
speak up, wanting to be heard.
Consider how the swans
glide across the pond, at home
in the beauty of their bodies.
Consider the parrots chatter,
the crows caw,
the robin's song.
Consider the hummingbird
finding nourishment in the

beautiful flower.
Consider the wise Scarlet Tanager
migrating south
seeking the warmth of the sun.
Consider how the goldfinch's
yellow body lights up
the front laurel bush.
Consider how the rare Mandarin duck
floating on a pond in Central Park
brings people together to watch and feel wonder.
The beloved Saint
preached
to the winged congregation.
While with the essence of their being,
the beauty of their form and the sound of their song:
the "sweet little sisters of the sky" preach to us:
"Spread your beautiful wings and fly".
- Dave Brown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제가 하와이 네이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아름답고 노래하는 새들입니다.
나는 최근에 새에 관한 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본토의 누군가가 쓴 것이기는 하지만(따라서 북미 새를 지칭함),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내 영혼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도 말을 할 것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

ㅋㅋㅋㅋㅋ

단번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모퉁이를 돌았더니
멈추고, 바라보고, 웃었다.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시스의 그림.

검은 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성자는 새들의 행렬을 마주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새들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Swat / 끝까지 / 쫓아.”

거꾸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들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 기러기가 함께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평선을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완벽한 V자를 형성합니다.

옥수수밭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Iona에서, 풀밭에 숨겨진
듣고 싶어서 말하세요.

백조가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연못을 가로질러 활공하다
그들의 몸의 아름다움 속에서.

앵무새의 수다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울다,
로빈의 노래.

벌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영양분을 찾아
아름다운 꽃.

현명한 Scarlet Tanager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으로 이주
태양의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금방울새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 본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면 월계수 덩불.

희귀한 만다린 오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센트럴파크 연못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설교하다
날개 달린 회중에게.

그들의 존재의 본질과 함께,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노래하는 소리가
“하늘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날아보세요.”

\- 데이브 브라운